

# 제 30기 한국여성신학회 신년 하례회

New Year's Assembl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Theology

2025. 02. 08.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회 소예배실



한국여성신학회

<https://www.kafts.org/>

## 2025년 한국여성신학회 신년 하례회

New Year's Assembly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Feminist Theology

“한국여성신학회 신년 하례회에 참석하신 선생님을 환영합니다!”

사회: 김순영(총무,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인사말: 강희수(회장, 성결대학교)

기도: 이일레(회계, 서울신학대학교)

### [1부] 신진 학자 논문 발표회

논문 발표: 홍혜빈 박사(보스턴대학교)

“좋은 삶을 방해하는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에 대하여:  
후기식민주의 비평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논찬: 백소영 박사(29기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강남대학교)

### [2부] 평화적 대화

“소통하라, 새로워져라: 교회 안과 밖에 핀 2030여성과 함께”

진행: 한경미(서기, 한신대학교)

### [알림]

1. 한국여성신학회 홈페이지 개설: <https://www.kafts.org/>
2. 후원 앱 개설(미션 펀드): <https://missionfund.org/go/?pi=kaftheology>
3. 후원 및 연회비 안내: 연회비 3만원  
신한은행 140-015-108406(한국여성신학회)/카카오뱅크 7942-02-12838(이일레)
4. 후원해 주신 교회에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갈현성결교회, 고양생명샘교회, 수지열린장로교회, 안흥성결교회, 이대대학교교회,  
참빛성결교회, 하양성결교회, 학동성결교회, 김진선(사진작가, 재능 후원)

### [3부] 식사와 친교

식사 장소: 진관 식당(이대 포스코관 옆)

함께 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새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으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도구로 아름다운 ‘희망의 꽃’ 피우시길 기원합니다.

#### 한국여성신학회 30기 임원 일동

회장 강희수/부회장 장영주/총무 김순영/부총무 박수빈/서기 한경미/부서기 이정민/  
회계 이일레/부회계 백일주/편집위원장 이인미/교육위원장 이주아

좋은 삶을 방해하는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에 대하여:  
후기식민주의 비평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홍혜빈(보스턴 대학교)

I. 들어가는 말

후기식민주의 비평가들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을 넘어서는 식민주의의 파괴적이고 비인간화하는 영향력에 대해 다층적인 분석을 제공해 왔다. 알제리 탈식민 운동의 지도자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식민주의의 심리적 악영향에 대해 논하며, 식민주의 이데올로기가 피식민인들에게 내면화되어 열등감을 낳고, 식민지배자를 모방하고자 하는 욕구를 만들어 억압을 지속시킨다고 하였다.<sup>1)</sup> 케냐 반식민 운동의 지도자인 응구기 와 티옹오(Ngũgĩ wa Thiong'o) 또한 식민지배자들이 피식민인들에게 그들의 언어를 강요함으로써 문화와 정체성을 억압해 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sup>2)</sup> 식민주의가 우리의 인식론적 관점을 왜곡하여 좋은 삶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 문화이론가인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식민주의의 태동과 함께 시작한 서양의 근대 이론이 동양을 이국적이고 열등한 타자로 상정함으로써 성립하였고, 이런 이분법적 이론에 기반한 학문은 동양에 대한 피상적이고 고정적인 이미지를 생산, 유통함으로써 동양에 대한 이해가 아닌 통제와 억압을 도모해 왔다고 주장하였다.<sup>3)</sup> 인도 출신 페미니스트 비평가인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은 서구의 인식론이 피식민인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보다 날카로운 비판을 제공하는데, 서구 인식론이 비서구 세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지우며 서구가 비서구 세계를 이해하고 재현하는 방식에 왜곡을 초래하며 이는 또한 피식민인들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부정하고자 욕망을 낳으며,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관점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들어 그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역할을 해왔다고 고발한다.<sup>4)</sup> 스피박은 또한 인도 엘리트 계층이 주도하는 탈식민주의 이론들도 서구의 이분법적이고 왜곡된 인식론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지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피억압자 중 가장 억압된 자들인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5)</sup>

이 글에서는 식민 지배의 해악에 대한 이와 같은 다층적 분석에 더하여, 식민 지배가 피식민인들의 도덕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쳐 우리가 좋은 삶을 영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방식과 그 심각성을 도덕철학의 개념인 '도덕 운(moral luck)'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후기식민사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탈식민화를 추구하는 후기식민

1) Frantz Fanon,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2008).

2) Ngũgĩ wa Thiong'o,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Kiribati: J. Currey, 1986).

3) Edward Said, *Orientalism: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London: Penguin, 1991).

4) Gayatri C. Spivak, "Bonding in Difference: An interview with Alfred Arteaga," in *The Spivak Reader*, eds., Donna Landry and Gerald Maclean (New York: Routledge, 1996).

5) Gayatri C. Spivak, "Can the Subaltern Speak?" in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 Nelson and L. Grossber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272-313.

주의 비평이 억압받는 사람들이 변혁의 과정을 시작하고 지속할 때 필요한 도덕적 역량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이것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바로 보고, 잘 판단하여 비로소 정확히 알게 되는 일에도 큰 노력이 필요하듯이, 앎과 행동을 잇기 위해서는 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노력은 그냥 마음 굳게 먹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탈식민화의 노력에는 용기나 정의감, 부지런함, 연민 등의 일종의 덕(virtues)이 필요하고, 지금과 다른 줄음을 상상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상상력도 필요하다. 물론 생계나 주거 같은 물질적인 조건들과, 지탱하고 도와줄 가족과 친구 같은 관계적 조건도 필요하다. 또 사회변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똑딱 이루어질 수 없기에, 늘 좌절의 순간이 도래하는데, 그때 생기는 절망이나 허무, 분노, 슬픔 등의 정동들이 변혁의 주체들에게 끼치는 실질적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다. 정신적·심리적 손상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변혁의 과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인함, 인내, 불굴의 정신 같은 또 다른 종류의 덕뿐 아니라,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체력 또한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앎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역량과 또한 기타 역량들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차별과 혐오, 착취와 억압 같은 구조적인 불의가 앎과 행동을 잇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에 편향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어떤가?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다른 계층의 사람들에 비해 구조적으로 더 자주, 더 심각하게 사회변혁에 필요한 도덕적 역량을 갖추는 일을 방해받는다면? 오랫동안 억압적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물질적인 조건을 갖추기 어렵고, 절망이나 슬픔 등의 부정적 정동에 노출될 기회가 많다. 또 물질적 불안정과 차별과 억압으로 생긴 무력감, 정신적 소진, 트라우마, 고립감, 자기검열 등의 각종 심리적 기제들은 용기나 연민, 인내 등의 덕을 함양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식민 지배나 노예제 같은 구조적 불의가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진다면 또 어떨까? 아리스토텔레스주의적 덕 윤리에서는 좋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덕의 함양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을 중시한다. 하지만 그 공동체가 세대를 이은 폭력과 불의로 박살이 나버렸다면? 할아버지는 일제의 손에 끌려가고, 할머니는 트라우마로 정신을 놓았고, 전쟁에서 불구가 된 아버지가 술로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고, 형제자매들은 도망가고, 오로지 견디는 삶을 살아온 어머니를 가진 개인이 그가 처한 조건으로 인해 지금과 다른 삶을 상상하고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필요한 도덕적 역량을 함양하지 못했다면, 그의 좋지 못한 삶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훼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언어가 있을까?

## II. 후기식민주의 비평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

식민지 경험으로 인한 피식민인들의 도덕적 훼손은 그러나 논의하기에 매우 조심스러운 주제이다. 첫째로 식민지 경험이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 다르고, 각 식민지의 역사와 상황이 달라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모든 피식민인이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훼손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식민지 경험은 어느 피식민인도 도덕적으로 훼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다만 이와 같은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의미하게 경험되고 그로 인한 결과가 사회적으로 관찰될 때 그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둘째로 구조적 불의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도덕적 역량이 훼손되고 도덕적 약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은,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구조의 책임을 피해자들의 부족한 도덕성의 탓으로 돌린다는 의혹을 사기 쉽다. 실제로 같은 논리가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노예제 옹호론

에서처럼 억압적 구조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노예제나 가부장제 같은 억압적인 사회 구조가 피억압자의 정치적, 경제적, 혹은 관계적 역량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비교적 쉽게 받아들인다. 일상적 사유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도덕적 우위가 전제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필자는 이 차이가 현대 사회가 도덕성을 이해해 온 지배적인 방식인 의무론(deontology)적 관점, 더 넓게 보자면 행위 중심 윤리학(act-based ethics)적 관점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근대 민주사회에 진입하면서 문화적, 도덕적, 종교적 관점이 다양해짐에 따라 선하거나 악한 것,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공유된 상식 선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점점 어려워졌고, 이에 행위자의 선함/악함이나 어떤 행위가 인간을 궁극적인 좋은 삶으로 인도하는지 등을 논하던 고대와 중세의 행위자 중심의 목적론적 윤리학(agent-based teleological ethics)은 행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의무론이나 결과주의 같은 행위 중심 윤리학에 지배적 위치를 내어주었다. 의무론적 관점에서 도덕성은 합리적 이성을 통해 보편화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을 따르는 행위에 내재하고, 또 다른 행위 중심 윤리학인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적 관점에서 도덕성은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에 내재한다.

이들 행위 중심 윤리는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평등하게 합리적 이성을 소유한 상태에서 보편적 법칙에 근거하여 도덕적 판단을 내린다는 가정에 따라 논의를 진행한다.<sup>6)</sup> 정치적, 경제적, 관계적 역량들이 운이나 노력, 혹은 여타 다른 조건들에 의해 얻기도 하고 잃을 수도 있는 것과 달리, 도덕적 역량이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소유한 합리성의 올바른 사용에 내재한다면, 구조적 불의로 그것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피해자의 인간성 자체가 훼손되었다고 보는 것과 같아진다. 그렇다면 구조적인 불의로 피해자의 도덕성이 훼손되고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도덕성을 이해하는 방식은 그러나 행위 중심적 관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와 중세에 지배적이던 행위자 중심의 목적론적 윤리학인 덕 윤리(virtue ethics)에서는 도덕성이 보편화할 수 있는 도덕 원칙에 내재한다고 보는 행위 중심 윤리학의 전제와 달리, 도덕성을 이상적인 선에 귀속시킨다. 여기서 도덕성이란 사람이 이상적인 선과 관련된 덕을 함양하여 최대한 그 선을 좇아 살아가는 데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적 사유에 기반한 고전적 덕 윤리학자들은 인간의 궁극적 목적을 궁극적 선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목적론적 삶이 곧 행복(eudaimonia) 혹은 번영(flourishing), 즉 좋은 삶을 의미한다.<sup>7)</sup> 이렇게 볼 때 도덕성은 규칙 준수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도덕적 상태, 즉 행위자가 이상적인 선에 가까워지기 위한 덕을 얼마나 함양했는지, 혹은 이상적 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악덕(vices)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옳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도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덕을 함양하고 악덕을 멀리하는, 즉 도덕성이 있는 사람이 옳은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위자 중심의 목적론적 덕 윤리의 근본적 질문은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된다.<sup>8)</sup>

6) Ruth Groenhout, “Virtue and a Feminist Ethics of Care,” in *Virtues and Their Vices*, eds., K. Timpe and C. Boy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481-501.

7)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J. A. K. Thomson (London: Penguin Classics, 2004), 1.13. 1102a28; 1102b13-30.

8) 물론 전통적 덕 윤리학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특히 페미니스트 윤리학자들은 이상화된 남성적 행위자를 전제하고 쌓아 온 미덕과 악덕의 체계가 그동안 여성들에게 지워 온 속박에 대해서 고발해 왔다. 페미니스트들은 전통적 덕 윤리학에 대한 비판은 Sandrine Berges, *A Feminist*

도덕성의 핵심인 덕의 형성이 행위자의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 토대로서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조가 중요해진다. 도덕성에 대해서 논할 때 무엇이 미덕이고 무엇이 악덕인지 판단하고 덕을 실천하여 탁월함을 성취하고, 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시공간인 공동체의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sup>9)</sup> 한 사람의 도덕적 행위를 출생, 가족이나 친구 관계, 그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적, 심리적 상호 관계, 교육 환경,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배경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덕 윤리학은 따라서 지배와 억압의 맥락에서 피억압자들의 변명을 막는 구조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해석을 제공한다. 앞서 든 예에서 여러 이유로 인해 누군가를 해하게 된 피식민인의 경우, 행위 중심 윤리학과 마찬가지로 그의 도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훼손을 보편적 도덕 원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억압적 구조의 결과로 이해하고, 극복을 위한 조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후기식민사회의 도덕적 지평을 이해하고 제약 속에서 변명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덕 윤리적 접근을 취할 때, 도덕 윤의 개념은 개인이 처한 구조적 조건이 그들의 성격, 선택, 결과 등 도덕적 활동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본문에서는 먼저 도덕 윤의 개념을 설명하고, 덕 윤리적 관점에서 도덕 윤 논쟁에 참여한 세 명의 여성 윤리학자를 소개할 것이다.

### III. 도덕 윤의 의미와 종류

행위 중심적 윤리학에서는 운을 도덕적 판단에 유효한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해 집을 잃거나, 부유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는 것 같은 일은 개인의 통제를 넘어서는 영역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행위자가 자기 통제 밖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에 도덕적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무론에서는 윤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행위자의 의지와 의도에 초점을 맞춰 도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A와 B 중 A는 다행히 아무 사고도 내지 않았지만 B는 사망 사고를 낸 경우, 법적으로는 그 처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도덕적으로는 두 명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는 논리이다.<sup>10)</sup> 이들은 같은 의지를 가지고 같은 행위를 하였으나 윤의 개입으로 인해 다른 결과를 낳았다. 이때 이들이 실제로 책임져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그들의 의지이며, 따라서 이 두 가지 경우에 서로 다른 도덕적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잘못된 일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운은 우리 삶의 매 순간에 개입하고, 우리가 행위나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영향을 끼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소방관 중 한 명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의연하게 대응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다른 한 명은 구조 활동 중 부상을 입어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앞의 소방관의 용감함과 헌신을 칭송하지만, 그의 용감함과 헌신은 사고라는 불운이 그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발휘될 수 있었다. 또 다른 예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원조를 받으며 성장한 학생이 근면하고 성실하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 칭찬 받을만한 그 학생의 근면과 성실 또한 좋은 환경이라는 행운의 결과

*Perspective on Virtue Ethics* (London: Palgrave-Macmillan, 2015)를 참조하라.

9) 덕의 형성에 있어서 공동체의 중심성에 대한 논의는 Alasdair MacIntyre, "Chapter 15. Virtues, Unity of Life and Concept of a Tradition," in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를 참조하라.

10) 관련 논의로는 Judith Jarvis Thomson, "Morality and Bad Luck," in *Moral Luck*, ed. Daniel Statm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를 참조하라.

이기가 쉽다. 이 예들은 우리가 빈번하게 행위자의 통제를 벗어난 운이 작용한 행위와 그 결과를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는 1979년, 도덕적 판단에서 모든 임의적 요소를 제거하고 모든 사람이 합리적 이성을 사용하여 보편적 준칙에 따를 것을 기대하는 ‘칸트주의적’ 관점은 우리 삶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도덕 운 논쟁에 불을 붙였다.<sup>11)</sup> 윌리엄스는 도덕 운을 행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적 운(incident luck)과 행위자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적 운(constitutive luck)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운이 ‘도덕성’에 대한 칸트주의적 이해를 어떻게 문제화하는지 설명한다. 먼저, 두 사람이 같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여도 한 사람에게는 행운이, 한 사람에게는 악운이 개입하여 각각 도덕적으로 칭찬받을 결과와 비난받을 결과를 낳았다면, 이 사건적 운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우리의 선택이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정당한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뒤흔든다. 또한, 기질이나 성장 배경 등 우리를 구성하는 조건들 자체에 운이 개입한다면, 이는 모든 도덕적 행위자가 평등하다는 전제를 파기한다.<sup>12)</sup> 윌리엄스는 도덕은 운에 면역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입장을 부정하고, 우리 동기, 의도, 성격 형성에 작용하는 운의 영향을 재조명하였다.

같은 해, 토머스 네이글(Thomas Nagel)은 도덕 운이 행위자의 통제 너머의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세밀하게 구분함으로써 도덕 운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였다. 그는 도덕 운이 “누군가의 행위의 중요한 측면이 그의 통제를 벗어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음에도 우리가 그를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간주할 때” 일어난다고 정의하고,<sup>13)</sup> 도덕 운을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했다.<sup>14)</sup>

첫째, 결과적 운(resultant luck)은 행동의 결과에 작용하는 운으로, 앞서 설명한 두 명의 운전자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첫 번째 운전자는 살인자로서 도덕적 및 법적 책임을 지게 되지만, 두 번째 운전자는 단순히 부주의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이는 운이 작용한 결과에 따라 상반되는 도덕적 판단이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둘째, 행위가 일어나는 상황에 개입하는 운(circumstantial luck)을 설명하기 위해, 네이글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 장교로서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사람과 전쟁 전에 운 좋게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여 나치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을 비교한다.<sup>15)</sup> 만일 독일군 장교에게도 전쟁 전 독일을 떠날 상황이 주어졌다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을 테고, 이는 상황적인 운도 도덕적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의미한다. 셋째, 구성적 운(constitutive luck)은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 능력 등에 영향을 주는 운으로, 유전자, 선천적 질병, 가정 환경, 성장 배경 등 인간을 형성하는 모든 요소를 뜻한다. 누군가를 이기적이거나 비겁하다고 비난할 때 그의 이기심과 비겁함이 불운한 성장 배경 등의 그의 통제 밖의 요인들의 결과라면 이는 구성적 운이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네이글은 마지막으로 선행한 사건이 행위에 인과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인과적 운(causal luck)은 제시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 개념이 상황적 운과 구성적 운과 중복된다고 여긴다.<sup>16)</sup>

11) Bernard Williams, *Moral Luck: Philosophical Papers 1973-198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20-22.

12) 위의 책, 22-30.

13) Thomas Nagel, “Moral Luck,” in *Mortal Ques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26.

14) 위의 책, 27-38.

15) 위의 책, 34.

우리 행동의 결과적, 상황적, 구성적, 인과적 요인들에 작용하는 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네이글이 주장하듯 행위 중심 윤리학이 전제하는 “합리적인 도덕적 판단의 영역은 확장 불가능한 지점으로 축소되는 것처럼” 보인다.<sup>17)</sup> 구성적이고 상황적인 운은 행위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행위 자체는 행위의 선행 조건들과 그 행위의 결과에 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운은 우리 삶의 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운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의 도덕적 평가의 범위가 극도로 축소되어, 결국 어떤 도덕적 판단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릴지도 모른다. 또한 도덕 운의 존재는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만일 구성적이고 인과적인 악운이 행위자의 성격이나 기질에 영향을 미쳐 그가 악한 행위를 하게 이끈다면, 그에게 도덕적 책임을 묻는 일은 정당한가? 만일 행위자가 자기 통제 안의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에 대해서만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려면, 누군가를 무엇이든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윌리엄스와 네이글이 시작한 도덕 운에 관한 논쟁은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덕적 책임의 맥락에서 진행되었다.<sup>18)</sup>

도덕 운의 논쟁에서 도덕적 책임 문제도 중요하지만, 필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도덕 운이 어떻게 ‘좋은 삶의 조건’에 개입하는가의 문제이다. 운이 개인의 도덕적 형성, 판단, 결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아래에서 소개할 세 명의 여성 윤리학자들은 도덕 운이 가져오는 좋은 삶의 취약성과 그 취약성의 중요성, 구성적 악운으로 인한 도덕적 훼손의 현실, 그리고 구조적이고 구성적 악운의 끈덕짐과 그로 인한 도덕적 훼손의 회복 불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후기식민사회의 도덕적 지평을 정확히 인식하고, 좋은 삶의 조건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IV. 좋은 삶을 방해하는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

##### 1. 도덕 운과 좋은 삶의 연약함

1989년, 불세출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명저 『연약한 선』에서 도덕 운과 그로 인한 취약성이 바로 인간 삶과 도덕적 자아의 중심 요소라는 점을 주장하며 도덕 운 논쟁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sup>19)</sup> 이 책에서 누스바움은 그리스 철학에서의 운의 문제를 탐구하며, 좋은 삶의 연약함(fragility)을 재조명한다. 누스바움은 운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vulnerability)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결정짓는 조건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 번영, 즉 좋은 삶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주장한다.

누스바움은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운에 취약한데, 이로 인해 우리의 좋은 삶은 연약해진다고 보았다. 좋은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미덕을 가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20)</sup> 활동은 필연적으로 외부의 자원을 필요로 하고, 이런 자원

16) Andrew Latus, “Constitutive Luck,” *Metaphilosophy* 34(2003): 460-475.

17) Nagel, “Moral Luck,” 27-38.

18) 국내의 도덕 운에 관한 연구들도 대부분 도덕 운의 개념을 소개하고 이것을 도덕적 책임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구인회, “도덕적 우연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 제45집(1999): 329-353; “도덕적 우연과 책임에 관한 소고,” 『철학논총』 제65집(2011): 31-51; 양선이, “도덕 운과 도덕적 책임,” 『철학연구』 제91호(2010): 265-293; 전성은, “도덕적 운의 도덕 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교육』 제34권(2023): 21-34.

19) Martha Nussbaum,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이병익, 강명신, 이주은 역, 『연약한 선: 그리스 비극과 철학에서의 운과 윤리』 (서울: 서커스출판상회, 2023).

20) 위의 책, 631-646.



의 유무가 좋은 활동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애라는 덕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되려면 우정을 쌓을 친구와 그 친구와의 우정을 향유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친구가 병에 걸릴 가능성, 내가 다른 가치들을 중시하느라 친구와의 우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 재난으로 인해 친구와 나의 주거지가 파괴될 가능성 등, 우연은 수많은 방식으로 우정이라는 활동을 방해하여 우애의 덕 함양을 좌절시킬 수 있다. 더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악운은 결국 덕의 함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좋은 삶을 방해한다.

또 어떤 경우는 도구적 수단이나 대상의 상실로 인해 탁월한 활동 자체가 완전히 차단될 것이다. 평생의 예측 상태, 심각한 만성 질환, 극도의 빈곤,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사망한 경우와 같은 예에서는 탁월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좋은 활동이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는 있다. 사회적 지위 면에서 불리한 사람의 경우 지위가 좋은 사람에 비해 좋은 정치 활동의 기회가 적을 것이다.<sup>21)</sup>

운의 이런 파괴적이고 재난적인 속성에도 불구하고, 누스바움은 운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철학적인 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 삶에 가치를 부여하는 요소들을 제거하여 삶을 좁고 빈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sup>22)</sup>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착은 운의 장난으로 그들을 잃었을 때의 파괴적인 고통과 덕을 상실할 가능성을 증가시키지만, 이 불안을 회피하고자 처음부터 아무 관계도 맺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궁핍해지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잃게 된다. 누스바움이 말하듯, “완전하게 강건한 삶은 빈곤한 것이 되기 쉽다.”<sup>23)</sup> 또한 칸트가 그랬듯 보편성을 매개한 도덕 법칙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다른 가치들을 그 아래 두어, 운의 파괴적인 속성으로부터 도덕 가치를 지키고자 한다면 도덕적 자아를 단편적이고 피상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sup>24)</sup> 인간은 무엇보다 이성적이면서도 동시에 감정적인 존재로, 감정적 삶의 풍요로움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운의 영향으로부터 면역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25)</sup>

누스바움은 좋은 삶의 불안정하고 연약한 본질을 인식하고, 이러한 이해에 비추어 사회적 정의와 평등을 위한 수단으로 공감과 열정 등의 덕을 함양해야 한다고 본다. 『선의 연약함』 이후 그는 감정 연구에 집중하며, 불안정한 삶을 사는 도덕적 주체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존엄하고 교양 있는 세계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사랑, 연민,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함양하고, 혐오, 질투, 수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의를 이어나간다.<sup>26)</sup> 누스바움은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보편주의적 입장을 고수하며, 지역적(parochial)인 것을 넘어 자유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인간은 본래 사랑하는 존재이며, 사랑을 통해 자유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던 개인들은 세상과 마주하고, 세상을 창조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바탕으로 공동 창조하는 세상이며, 인간은

21) 위의 책, 648.

22) 위의 책, 82-97.

23) 위의 책, 38.

24) 위의 책, 68-71; 146-147

25) 위의 책, 732-759.

26) Martha Nussbaum,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Political Emotions: Why Love Matters for Justic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이러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적절한 인문학적 교육이 구조적 불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의 믿음에 근거한다.<sup>27)</sup>

## 2. 구성적 악운과 도덕적 훼손

클라우디아 카드는 1996년 『부자연스러운 복권』에서 누스바움이 조명한 인간 삶에서 운과 취약성의 중심성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억압의 맥락 속에서 논한다.<sup>28)</sup> 윌리엄스와 네이글, 그리고 누스바움이 어느 정도 특권적인 관점에서 주로 개인의 도덕적 행위에 작용하는 운의 ‘우연적’ 성격과 그에 따르는 결과들에 대해 검토했다면, 카드는 운이 “필연적으로 우연의 문제는 아니”라고 단언한다.<sup>29)</sup> 한 사람의 운이 다른 사람에게는 선택이거나 사회적 관행의 결과, 혹은 제도적 억압의 산물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일하는 A는 우연히 승진 기회를 잡아 운 좋게 승진한 반면, B는 동일한 회사에서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적 조직 문화로 인해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했다. A에게는 그저 우연적인 운이 작용한 것일 수 있지만, B에게 이는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인 억압의 산물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책임을 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이 잠재성은 운과 노력에 더 크거나 작게 실현될 수 있다. 이때, 그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사회적 특권이라는 운의 영향을 받는다.”<sup>30)</sup>

카드는 특히 성차별이나 이성애중심주의, 아동학대와 같은 억압의 조건 속에서 악운을 경험하는 자아가 도덕적으로 훼손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선택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며, 우리의 선택은 종교적, 도덕적 전통에서 믿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31)</sup> 이를 위해 카드는 도덕 운이 개인의 행위에 일방적으로 개입하는 임의적 우연이 아니며, 실제로 행위와 운이 서로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논증한다.<sup>32)</sup> 네이글이 상황적 운의 예로 들었던 나치 독일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사업가의 경우, 그의 운은 네이글이 상정하듯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대인관계의 결과이다.<sup>33)</sup> 사업가는 자신의 탈출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구, 동료, 또는 심지어 적대 세력 중 누군가와 관계가 그의 탈출에 결정적

27) 누스바움은 인간을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적인 개인으로 가정하며, 인문주의적 교육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는 것을 사회적 변혁보다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헌신한다. 로지 브라이도티는 누스바움의 이러한 자유주의적 경향이 고대 그리스 시대의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이상을 수용한 미국의 신자유주의 접근을 지지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Rosi Braidotti, *The Posthuman* (Cambridge: Polity Press, 2013), 38-39. 또한 안나 밀란과 알리 칸 윌디림은 누스바움이 자신의 이론이 매우 북반구 엘리트주의적 특수성과 지역성을 띄고 있음에도 스스로를 보편적이라고 간주하며 북반구의 학자들과 남반구의 소외된 개인들 간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유사성을 가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nna Millan and Ali Can Yildirim, “Decolonizing Theories of Global Justice,” in *Decolonizing Enlightenment: Transnational Justi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a Postcolonial World*, ed. Nikita Dhawan (Toronto: Barbara Budrich Publishers, 2014), 195-208; 204.

28) Claudia Card, *The Unnatural Lottery: Character and Moral Luck*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6), Chapter 2, “Responsibility and Moral Luck.”

29) 위의 책, 22.

30) 위의 책, 24.

31) 위의 책, 22.

32) 카드는 마가렛 워커의 ‘행위성 매트릭스(agency-matrix)’ 개념 위에서 이 논증을 펼친다. 워커는 운과 행위성은 서로 의존적 개념으로, 개인의 운이 그들의 행위성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운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Margaret Urban Coyne (now Walker), “Moral Luck?”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19 (1985): 319-325.

33) Card, *Unnatural Lottery*, 40.

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의 탈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가 홀로 코스트에 가담하지 않고 그의 도덕적 완전성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단순히 그가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겼다고 해서 탈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인물들의 반응과 지원,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성적 도덕 운의 주요한 원천은 중요한 타인(부모, 연인)과의 관계 및 기본 사회 제도(교육, 경제)로 구성된 관계이다.”<sup>34)</sup>

그러나 카드는 억압은 피억압자들이 완전하고 통합된 자아로서 구성되고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여 억압된 자들이 관계적인 악운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다른 행위자들과의 결속을 막아 결과적으로 도덕적 훼손을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한다. 억압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내적이고 관계적인 ‘이중 구속’을 통해 억압된 개인이 안정적이고 통합된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sup>35)</sup> 내적으로, 일관된 자아가 없는 개인은 자신의 신념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어려워져 종종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다. 관계적으로, 분열된 자아는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워, 견고하고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게 한다. 이는 사회적 결속과 집단적 도덕적 행동에 필수적인 공감, 이해, 연대에 장벽을 만든다. 개인이 자신의 분열된 자아를 화해시키지 못할 때, 억압적인 조건을 저항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에 참여하는 능력도 감소한다. 이렇게 억압의 파편화하는 힘은 억압받는 자들에게 도덕적 훼손을 입힌다.<sup>36)</sup>

여성 억압과 아동학대는 역사적으로 얽혀있다. 둘 다 도덕적 훼손을 초래하며(morally damaging), 하나의 해로운 효과가 종종 다른 하나를 악화시킨다. 억압은 선택을 조작하여 일부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다른 결정을 지나치게 매력적이거나 쉽게 만든다. 이는 열악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취약한 사람들—연약함으로 특징지어지고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체득하도록 교육받은 여성들과—을 성적 학대의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아동학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며, 돌봄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한다.<sup>37)</sup>

억압이 만드는 구성적 악운에 쉽게 노출됨에도, 카드는 억압의 피해자들이 동료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윌리엄스와 네이글 이후 도덕적 책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덕 운에 대한 논의는 책임을 ‘공로(credit)’의 관점에서 이해하여 운이 어떤 사건의 도덕적 원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행위자는 이 일에 대한 공로 혹은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sup>38)</sup> 하지만 이런 ‘응보적 정의(retributive justice)’는 도덕성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억압받는 자를 도덕적으로 훼손한다는 점에서, 억압의 상황에서 “운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의(justice)의 부재를 나타내”며, 이런 기본적인 정의의 부재 속에서 도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은 실제로 응보적 정의의 근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지속적인 트라우마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 어려워, 종종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이들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방어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34) 위의 책, 41.

35) 위의 책, 42.

36) ‘훼손’이라는 다소 어색한 번역어는 주로 상이군인의 트라우마에 대한 논의에서 사용하는 ‘도덕적 손상(moral injury)’이라는 번역어와 구별하기 위해 채택하였다.

37) 위의 책, 41.

38) 위의 책, 22; 28-29.

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에 반해 카드는 도덕적 책임을 공로의 관점이 아닌 덕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도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무가 아닌 ‘성취’로 여긴다.<sup>39)</sup> 그는 윌리엄스나 네이글처럼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윤의 우연성에 맞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상황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책임을 지는 것을 더 중시한다.<sup>40)</sup> 그리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를 분열시키는 구성적 악운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완전성(integrity)을 의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41)</sup> 가장 중요한 윤리적 성취 중 하나는 개인의 통합성을 함양하고 유지하며, 적대적인 조건에서도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다.

### 3.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과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훼손

카드가 구성적 운을 경험함으로써 이 자아가 도덕적으로 훼손되는 방식과 그 훼손을 극복하여 온전하고 책임 있는 주체로 서는 것을 강조했다면, 리사 테스만(Lisa Tessman)은 좋은 삶의 가능성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인 억압을 겪는 사람들이 겪는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훼손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마련하고자 한다.<sup>42)</sup>

테스만은 규범적(normative) 페미니스트 해방 이론들이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종종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해방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에 적합한 덕목들(용기, 완전성, 정의로운 분노, 의리 등)로 길러내거나 바꾸는 일의 어려움 혹은 불가능성을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마치 해방의 과업을 가진 억압받는 주체들이 “욕망과 원칙 사이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하지 않고, 항상 원칙에 따라 욕망을 선택할 수 있고, 해방을 위한 규범적 모델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sup>43)</sup> 하지만 예를 들어, 성차별적인 직장 문화 속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는 평등한 대우를 원하면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갈등을 피하려는 욕망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그는 용기와 분노, 의리 같은 해방을 위한 덕목으로 자신의 성격을 변화시키고자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 변화의 어려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즉, 사회적 기대와 제도적 억압이 여성의 행동 양식과 성격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을 해방을 위해 필요한 덕목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구조적으로 제약받는다. 이럴 때 억압받는 자들에게 해방을 위한 덕목은 ‘부담스러운 덕(burdened virtues)’이 된다.<sup>44)</sup>

이런 의미에서 테스만은 “페미니스트 윤리학 및 사회 정치 이론에서 지배적인 규범적 이론화가 도덕적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 잘못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도덕적 실패를 은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sup>45)</sup> 따라서 테스만은 억압의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덕적 훼손은 해방에 관한 규범 이론들이 제시하는 방법(누스바움의 공감이나 카드의 책임의

39) 위의 책, 22.

40) 위의 책, 23.

41) 위의 책, 24.

42) Lisa Tessman, *Burdened Virtues: Virtue Ethics for Liberatory Strugg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43) 위의 책, 25.

44) 위의 책, 107-131.

45) Lisa Tessman, “Idealizing Morality,” *Hypatia* 25(2010), 798.

성취 등)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한다. 이 가능성을 받아들여야만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일의 의의와 방법을 탐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6)</sup> 테스만은 카드의 구성적 악운과 도덕적 훼손의 논의가 이 어려움에 대한 논의의 물꼬를 텃다고 평가하지만, 그가 도덕적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해결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너무 쉽고 빠르게 접근한다고 본다.<sup>47)</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 테스만은 ‘구조적이고 사건적인 악운(systemic, incident bad luck)’과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systemic, constitutive bad luck)’의 개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sup>48)</sup> 구조적이고 사건적인 악운은 자유, 물질적 자원, 정치적 권력의 박탈과 같은 외부적 한계를 억압받는 행위자에게 부과하여 그들의 복지를 저해함으로써 억압받는 자의 번영을 방해한다. 이러한 악운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의해 발생하며, 종종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개인의 자원이나 권리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이고 사건적인 악운은 구조적 변화와 저항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정의를 위한 운동이나 정책 개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억압받는 자가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악운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공동체의 힘을 필요로 한다.

반면,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은 억압적인 조건이 개인의 도덕성을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이러한 악운은 단순히 외부적 자원이나 권리의 결핍에서 비롯되지 않고, 억압받는 환경이 개인의 성격과 가치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사회적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성장한 개인은 그로 인해 도덕적 가치관이 왜곡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은 단순한 저항이 아닌,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성찰을 요구한다. 즉, 억압의 결과로 형성된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성격 변화가 필요하며,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억압의 구조 속에서 때로는 불가능하다.<sup>49)</sup>

테스만은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 개념이 덕 윤리적 관점에서 억압받은 자를 부당하게 비난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들의 도덕성이 훼손되는 구조와 그 심각성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한다.<sup>50)</sup> 덕 윤리에서는 심리적 손상(psychic damage)과 도덕적 훼손을 분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의무론과 같은 행위 중심 윤리 이론은 본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즉 운이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손상이 성격 결함이나 악의의 발현으로 이어지면, 개인은 이러한 결함과 그로 인한 유해한 행동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sup>51)</sup> 서론에서 든 예처럼, 식민 지배로 인해 어려운 삶을 살아온 피식민인이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을 갖게 되고, 어느 순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해한 경우, 행위 중심 윤리 이론은 억압으로 인한 정신적 손상을 인정함에도, 심리적 손상과 성격 형성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간과하여,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상황에 의해 형성된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과 그로 인한 유해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 반면, 행위자 중심의 덕 윤리는 인간의 번영을 방해하는 심리적 손상을 곧 도덕적 훼손으로 간

46) Tessman, *Burdened Virtues*, 23.

47) 위의 책, 17-23.

48) 위의 책, 27.

49) 위의 책, 27-29.

50) 위의 책, 36-39.

51) 위의 책, 37.

주한다.

덕 윤리적 관점에서 (중략) ‘손상’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심리적 특성은 실제로 도덕적 특성, 즉 성격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그러한 심리적 특성을 손상이라고 지칭할 때, 그 특성이 인간의 번영을 방해한다는 부정적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심리적 특성은 도덕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지만, 어떤 손상된 심리적 특성은 미덕의 결여 또는 악덕의 존재를 나타내며, 이는 개인이 번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특성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심리적이고 도덕적 손상은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 대신 죄책감이나 체념을 느끼는 경향, 지속적인 절망감을 느끼는 성향, 타인을 조종하거나 거짓말하는 습관, 자신감의 결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sup>52)</sup>

그렇다면 덕 윤리에서 도덕적 논의는 유해한 결과에 대한 책임 논의에서 벗어나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을 만들어 낸 사회적 조건의 불의를 향할 수 있다.

여기서 테스만이 억압의 영향으로 인해 형성된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이나 유해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그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을 형성하게 만드는 구조적이고 구성적 악운의 강력한 성격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억압으로 인한 도덕적 훼손이 회복하기 매우 어렵고, 때로는 어떠한 처방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본질적이고 심각하다면, 그리하여 억압받는 자들이 좋은 삶을 일굴 가능성을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방해한다면, 해방적 담론들은 그러한 회복 불가능한 훼손까지도 이해하고 인정한 후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 V. 나가는 말

이 연구는 사회변혁을 논의하는 후기식민주의 비평이 탈식민의 과업에 필요한 도덕적 조건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이를 이미 모두 갖추고 있다고 가정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탈식민과 같은 높은 수준의 도덕적 과업을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낙관론에서 출발하면, 변혁의 주체들은 과정 중에 실패하거나 좌절할 때마다 그 책임을 스스로에게 돌리게 된다. 특히 미덕을 함양할 기회 대신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 대신 죄책감이나 체념을 느끼는 경향, 지속적인 절망감을 느끼는 성향, 타인을 조종하거나 거짓말하는 습관, 자신감의 결여 등”의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을 형성하게 하는 악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람들에게, 혼종적 창조성으로 식민 질서를 전복하고 인식론적인 전환을 통해 탈식민화를 가져올 주체의 비전은 ‘부담스러운 덕’이 될 수 있다.<sup>53)</sup>

본문에서 살펴본 세 명의 여성 윤리학자는 도덕 운을 각자의 관점에서 탐구하여, 억압적 사회 질서가 가져오는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과 그 악운에 더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이 겪는 도덕적 훼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누스바움에게서 우리는 운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삶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임을 배웠고, 카드를 통해 구성적 악운으로 인해 억압받는 자들이 통합된 자아와 건강한 관계의 형성을 방해받고, 이에 따라 도덕적 훼손이 생기는 상황을 이해하였다. 마지막으로 테스만은 지속적이고 벗어나기 어려운 억압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도덕적 훼손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포함할 때, 진정으로 해방적인 담론이 시작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앞서 지정한 누스바움의 자유주의적 경향에 더해, 카드와 테스만이 억압에 처한 개인의 도

52) 위의 책, 37.

53) 위의 책, 37.

덕적 훼손을 주로 논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논의가 식민지 경험의 지속적이고 집단적이고 세대전이적인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sup>54)</sup> 하지만 덕 윤리적 관점에서 인간의 번영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에 대한 이들의 논의는, 후기식민주의 비평이 식민지 경험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경제적, 인식론적, 심리적인 역량의 약화를 이외에도 도덕적 역량의 약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한다. 좋은 삶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파악하고 바뀌어나가는 데에 필수적 덕을 함양할 조건이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 조건을 박탈당한 자들의 해방까지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54) 이는 후속 연구의 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구인회. “도덕적 우연에 관한 고찰.” 「철학연구」. 제45집(1999): 329-353.  
———. “도덕적 우연과 책임에 관한 소고.” 「철학논총」. 제65집(2011): 31-51.  
———. “도덕적 우연에 관한 논의들.” 「철학논집」. 제27집(2011년): 117-139.
- 양선이. “도덕 운과 도덕적 책임.” 「철학연구」. 제91호(2010): 265-293.
- 전성은. “도덕적 운의 도덕 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교육」. 제34권(2023): 21-34.
-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lated by J. A. K. Thomson. London: Penguin Classics, 2004.
- Berges, Sandrine. *A Feminist Perspective on Virtue Ethics*. London: Palgrave-Macmillan, 2015.
- Braidotti, Rosi, *The Posthuman*. Cambridge, UK: Polity Press, 2013.
- Card, Claudia. *The Unnatural Lottery: Character and Moral Luck*.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6.
- Fanon, Frantz. *Black Skin, White Masks*. New York: Grove Press, 2008.
- Groenhout, Ruth, “Virtue and a Feminist Ethics of Care.” In *Virtues and Their Vices*. Edited by K. Timpe and C. Boy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481-501.
- Latus, Andrew. “Constitutive Luck.” In *Metaphilosophy* 34(2003): 460-475.
- MacIntyre, Alasdair.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3rd ed.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7.
- McDowell, John (1979). “Virtue and Reason,” in *Virtue Ethics*. Edited by Roger Crisp and Michael Slo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 Millan, Anna, and Ali Can Yildirim. “Decolonizing Theories of Global Justice.” In *Decolonizing Enlightenment: Transnational Justi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a Postcolonial World*. Edited by Nikita Dhawan, Toronto: Barbara Budrich Publishers, 2014, 195-208.
- Nagel, Thomas. “Moral Luck.” In *Mortal Questions*.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5-38.
- Nussbaum, Martha.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 *Political Emotions: Why Love Matters for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 .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이병익, 강명신, 이주은 역. 『연약한 선: 그리스 비극과 철학에서의 운과 윤리』. 서울: 서커스출판상회, 2023.
- Said, Edward. *Orientalism: Western Conceptions of the Orient*. London: Penguin, 1991.
- Spivak, Gayatri C., “Can the Subaltern Speak?” In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ited by C. Nelson and L. Grossberg.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8, 272–313.
- . “Bonding in Difference: An interview with Alfred Arteaga.” In *The Spivak Reader*. Edited by Donna Landry and Gerald Maclean. New York: Routledge, 1996.
- Tessman, Lisa. *Burdened Virtue: Virtue Ethics for Liberatory Struggl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 “Expecting Bad Luck.” In *Hypatia* 24(2009): 9–28.
- . “Idealizing Morality.” In *Hypatia* 25(2010): 797–824.
- . *Moral Failure: On the Impossible Demands of Mor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 Thomson, Judith Jarvis. “Morality and Bad Luck.” In *Moral Luck*. Edited by Daniel Statman.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
- wa Thiong'o, Ngũgĩ. *Decolonising the Mind: The Politics of Language in African Literature*. Kiribati: J. Currey, 1986.
- Walker, Margaret Urban (then Coyne). “Moral Luck?” In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19 (1985): 319–325.
- Williams, Bernard. *Moral Luck: Philosophical Papers 1973–1980*.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논찬]

홍혜빈 박사의 “좋은 삶을 방해하는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에 대하여:

후기식민주의 비평에 대한 덕 윤리적 접근”에 대한 논찬

백소영(강남대학교, 기독교사회윤리 전공,  
29기 한국여성신학회 회장,  
현 한국기독교윤리학회회장)

먼저 한국여성신학과 한국기독교윤리학 분야에서 활동할 또 한 분의 신진학자를 맞이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직접 홍혜빈 박사의 논문 발표 자리를 축하하고 논찬문을 읽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부득이한 행정으로 결례하게 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평소 논찬문에 밝히지 않는 학회장의 이력을 더한 까닭은 논찬자로서 책무의 엄중성을 마음에 새기고자 함입니다.

박사학위논문 요약으로 알고 있는 본 글에서 홍 박사는 ‘도덕 운(moral luck)’이라는 개념으로 후기식민주의와 페미니즘의 비평의 교차 지점에서 행위자의 도덕성 역량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홍 박사도 서언에서 파농, 티옹오, 사이드, 스피박을 통과하면서 소개하고 있듯이, 후기(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이상적 선’과 ‘보편적 도덕규범’의 목록들을 선점한 식민지배자들의 엘리트적 특수주의와 이를 기준으로 피식민지 사람들을 ‘열등의 기호’로 치부해 온 역사와 수행성을 비판합니다. 따라서, 이를 간파하고 비판하며 넘어서고자(post)하는 후기(탈)식민주의 이론가들은 피식민 상황의 행위자들에게 피식민성 극복을 위한 도덕적 역량을 요청하게 됩니다. 논문에서 제시하듯이 소위 용기, 정의감, 부지런함, 연민, 강인함, 인내, 불굴의 정신 등이 이를 수행하기 위한 덕목(virtues)들이죠. 하지만, 홍 박사는 ‘도덕 운’의 개념을 가져와 피식민 상황에 오래 노출된 행위자에게 이러한 덕목들을 동등하게 요청하는 것의 부적절성을 지적합니다. 제국주의, 인종차별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주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의 ‘불운한’ 제도적 억압 구조에서 피식민 지배의 위치에 비자발적으로(불운하게) 배치된 행위자는, “절망, 슬픔, 무력감, 정신적 소진, 트라우마, 고립감, 자기 검열 등의 각종 심리적 기제”로 인해 덕 윤리를 구성할 수 있는 핵심적 공동체를 상실하고, 개인적으로도 도덕적 훼손이 이뤄진 상황임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선험적인 보편 이성에 근거를 두고 윤리 판단에 있어 “운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행위자의 의지와 의도에 초점을 맞춰 도덕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칸트의 윤리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홍 박사는 1979년 버나드 윌리엄스(Bernard Williams)가 처음 개념화한 “도덕 운” 개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악운에 놓여 도덕적 훼손을 겪은 행위자’들의 도덕 판단 역량의 문제를 검토합니다. 홍 박사가 소개하듯이, “도덕 운”이란 “개인이 처한 구조적 조건이 그들의 성격, 선택, 결과 등 도덕적 활동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서, 윌리엄스의 “사건적 운(incidental luck)”과 “구성적 운(constitutional luck)”, 토마스 네이글(Thomas Nagel)의 “결과적 운(resultant luck)”, “상황에 개입하는 운(circumstantial luck)”, “구성적 운(constitutive luck)”, “인과적 운(causal luck)”의 범주와 사례를 다루며, 윤리학의 기본 질문인 ‘좋은 삶의 조건’에 ‘도덕 운’이 개입하는 복잡한 층위의 문제를 다룹니다.

특히 홍 박사는 피식민 상황의 이중겹, 삼중겹의 교차 지점에 놓인 ‘여성’의 문제에 관심하

는 과정에서 세 사람의 여성 윤리학자를 소개합니다. 먼저,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baum)은 그리스 비극과 철학에 나타난 운과 윤리의 관계를 논한 『연약한 선 *The Fragility of the Goodness*』(1989)에서 좋은 삶의 연약성(fragil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언급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심각한 악운은 결국 덕의 함양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좋은 삶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누스바움에게 이 사실이 곧 행위자의 도덕적 실패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으니, “불안정한 삶을 사는 도덕적 주체가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여 존엄하고 교양 있는 세계 시민이 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 사랑, 연민,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함양하고, 혐오, 질투, 수치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억제해야 한다”는 논의를 전개합니다. 인간이 “본래 사랑하는 존재”라는 누스바움의 본질주의적 접근은, 자신이 언급한 인간 기질의 구성성과 모순되는 해결안으로 읽히는데, 이 지점에서 홍 박사는 누스바움의 입장이 “고전적 자유주의에 뿌리를 둔 보편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보편주의와 적절한 인문학적 교육이 구조적 불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서구 중산층 엘리트 지식인의 낙관론을 비판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클라우디아 카드(Claudia Card)는 『부자연스러운 복권 *The Unnatural Lottery*』(1996)에서 운과 취약성의 관계를 ‘억압의 맥락’에서 더욱 심화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누스바움의 접근은 윌리엄스나 네이글과 다르지 않게 ‘특권적인 관점’을 반영한다고 비판한 카드의 관점에 동의하게 됩니다. 위의 세 사람이 운의 우연성이 도덕적 역량에 미치는 부분을 개인적 차원에서 다룬 반면, 카드는 “성차별, 이성애중심주의, 아동학대 등의 억압적 조건 속에서 악운을 경험하는 자아가 도덕적으로 훼손되는 방식”에 집중하여 논의 전개합니다. 카드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선택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종교적, 도덕적 전통에서 믿는 것처럼 온전히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억압적 상황’은 “완전하고 통합된 자아로서 구성되고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며 억압된 자들이 관계적인 악운에 더 취약하게 만들고, 다른 행위자들과의 결속을 막아 결과적으로 도덕적 훼손을 일으”킵니다. 이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행위자가 ‘책임질 수 없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가부장제, 인종차별주의, 자본주의, 이성애주의 등의 교차 지점에서 여성/흑인/빈곤/동성애자가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훼손’의 실재성을 포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카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카드는 “억압의 피해자들이 동료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역량은 어디서 오는 것인지, 카드가 이 부분을 논하였는지가 궁금합니다. 홍 박사가 소개한 카드의 주장만으로 보면, ‘구성적 도덕 운’의 개념을 통해 지속적 억압 상황에서 무력하고 비겁하고 때론 생존형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자에 대해 우리가 ‘응보적 정의’에 입각한 비난은 멈추고, 그 행위자가 즉각적으로 탈식민적 주체가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도덕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까지이지, 그가 동료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질 수 있는지를 기대, 격려, 동참할 지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나 ‘도덕적으로 훼손된’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윤리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목회상담학, 심리치료 등의 영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보다 장기적으로 도덕적 훼손을 입히는 식민주의적 사회제도를 개혁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현재 그러한 구조악에 의해 훼손된 행위자들에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연대는 사회복지 영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도덕 운’의 개념을 통해 우리가 ‘윤리(학)적’ 영역에서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을かの 질문인 셈입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윤리학은 그것이 구성적 차원이든 구조적 차원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불운과 악의 일상성 가운데서도 ‘선’ ‘정의’ ‘사랑’을 선

택하는 도덕적 개인의 규범적 당위성을 ‘주장’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저는 ‘여전히’ 칸트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결코 ‘도덕 운’ 개념을 윤리학적 논의에서 배제하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윤리학이라는 분과학문 영역에서 목회상담학이나 사회복지학과는 ‘다른’(저로서는 윤리학은 결국 ‘normative’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sup>55)</sup> 역할 수행에 ‘도덕 운’이 기여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드가 도덕적 책임을 ‘공로’의 관점이 아니라 ‘덕’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의무론이 아닌 ‘성취’로 접근한다는 것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윤리학적으로 normative’하게 주장하려면 결국 누스바움의 방법론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카드도 결국엔 “구성적 악운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완전성(integrity)을<sup>56)</sup> 의식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흥 박사의 말처럼 “가장 중요한 윤리적 성취 중 하나는 개인의 통합성을 함양하고 유지하며, 적대적인 조건에서도 우리가 충실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성취할 역량을 기를 기회를 ‘불운하게도’ 박탈당한 행위자가 이걸 어떻게 성취하는지, 적어도 발제문의 논지 안에서 카드의 방법론은 안 보입니다.

차라리 “회복할 수 없는 도덕적 훼손”을 강조하면서, 누스바움의 ‘공감’이나 카드의 ‘책임의 성취’가 불가능하다는 리사 테스만(Lisa Tessman)의 주장이 솔직해 보입니다. 제가 여성주의 사회윤리학의 ‘어머니’라고 평가하고 싶은 베벌리 해리슨(Beverly W. Harrison)도 덕목으로서의 ‘정의로운 분노’를 말한 적 있는데, 테스만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이를 길러내기 어려운 구조와 구성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배치된 행위자에게 여성주의 윤리학자들이 제시하는 덕목들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덕(burdended virtue)”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구조적이고 사건적인 악운(systematic, incident bad luck)”과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systematic, constitutive bad luck)”의 개념을 구별하는 테스만은, 전자는 개별화된 책임 영역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위한 사회적 저항의 윤리로, 후자는 개인의 내면적 변화와 성찰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구분하는데, 누스바움보다는 현실적인 주장임에도 후자의 부분 즉 “구조적이고, 구성적인 악운”에 대해 제 의문은 계속 남습니다.

“덕 윤리에서는 심리적 손상(psychic damage)와 도덕적 훼손을 분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쩌면 이 전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질문들이 꼭 막힌 도덕적 의무론자의 사고방식으로 몰아붙여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자기성찰을 해보기도 합니다. “도덕 운”이라는 개념은 흥 박사가 말하듯 개인에 대한 “책임 논의에서 벗어나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을 만들어 낸 사회적 조건의 불의를 향할”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만이 비록 ‘정당화할 의도는 없다’지만,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된 도덕성”을 여전히 ‘도덕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흥 박사 말대로 ‘normative하게 살아낼 도덕적 역량이 훼손된’ 책임이 그들에게 있지 않다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고 곁을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부터 출발했던 윤리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불운’하게도 심리적, 제도적으로 나에게 안전한 공동체에서 도덕적 역량을 기를 환경은 주여지지 않되 도덕적 규범성은 가장 강화된 방식으로 요구되었던 삶의 배치에서 성장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붙들며 나를 구성해왔던 의지와 책임감을 ‘결국엔 인간이 가진 공통의 역량’

55) 제가 이해하는 윤리학의 특성으로 normative를 적으며 굳이 ‘규범적’이라고 번역하지 않은 까닭은 저 역시 서구·유럽·개신교·남성·이성애중심주의가 만든 ‘특수주의적 규범들’은 넘어서고(post)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로 쓰고 ‘마땅히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은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했습니다.

56) 저는 개인적으로 ‘통전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이 완전해질 가능성은 없으니깐요.

(잠재성과 가능성)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도덕 운’의 개념으로 평가한다면 저에게 ‘운이 좋았던’ 부분은 ‘기질’일까요? 분명히 ‘도덕 운’ 개념은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이상적 덕목을 수행하는 역량을 가진다고 전제하는 ‘엘리트주의적 발상’을 경계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는 개념이며, 후기(탈)식민주의 이론가와 운동가들이 또 하나의 ‘억압’을 얻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는 ‘규범성’ 부분을 재고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복 불가능하게 도덕성을 훼손(당)한” 구성원들을 우리의 공동체에 ‘포함’하는 것은 사랑과 복지이지, 이들이 도덕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론을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도덕 운’ 논의자들은 심리학이나 사회복지 영역으로 바통을 넘기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홍 박사는 가장 중요한 윤리적 물음이 “무엇이 옳은 행동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했는데, 이 둘이 분리되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러나 제가 논찬문에서 상술한 모든 질문은 ‘도덕 운’ 개념을 말하는 이론가들을 향한 것이지, ‘넘어서려는 것들’을 놓고 씨름하는 모든 ‘포스트’ 이론가들이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들 가능성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고 이를 성찰하게 하는 ‘도덕 운’ 개념을 윤리학계와 여성신학계에 소개하는 홍 박사님의 윤리학적 스탠스나 방법론에 대한 도전은 아닙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비교적 낯선, 그러나 중요한 ‘도덕 운’ 개념을 소개해주신 것에 감사함을 표합니다. 이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한국여성신학과 한국사회윤리학에 귀한 개념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학자로 성장하시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 [2부] 평화적 대화

### “소통하라, 새로워져라: 교회 안과 밖에 핀 2030여성과 함께”

진행: 한경미(서기, 한신대학교)

#### \* 준비물

단어 카드, 색종이, 메모지, 펜, 원으로 자리 배치, 조용한 음악, PPT

#### 1. 평화적 대화 진행에 대한 안내 - 5분

##### 1) 주제 안내

- 영상 : 응원봉의 2030 여성 뉴스.

##### 2) 대화 방식 안내

- 피스 스피커가 있는 경우에만 말할 수 있습니다.
-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언해야 하기에 혼자 너무 길지 않게 발언합니다.
- 발언 중에 상대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 타인의 의견을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 기타 의견 받기

#### 2. 이해하기 - 10분

- 1) 20대 여성의 목소리 : 우리는 왜 응원봉을 들었는가? 교회에서 20대는 어떠한가?
- 2) 인터뷰 기사 보기 - 20대 5명의 증언 (참고자료)
- 3) 침묵으로 생각 정리 - 질문을 미리 보여주고 생각할 시간을 줌

#### \* 질문 공유 - PPT

- ① 변화된 교회 밖의 2030여성,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다.
- ② 2030여성이 교회 안에 새로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여성신학적 과제는 무엇일까?

#### 3. 경청하고 나누기 : 30~40분

- 1) 변화된 교회 밖의 2030여성,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이러한 이해가 필요하다.
  - 단어 카드, 메모장 활용
- 2) 2030여성이 교회 안에 새로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여성신학적 과제는 무엇일까?
  - 단어 카드, 메모장 활용

#### 4. 마무리 - 5분

서클에서 나왔던 이야기를 토대로 여성신학회가 2030여성 세대와 소통하고 새롭게 발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신학적 과제는 무엇인지 2명 정도 의견 듣기